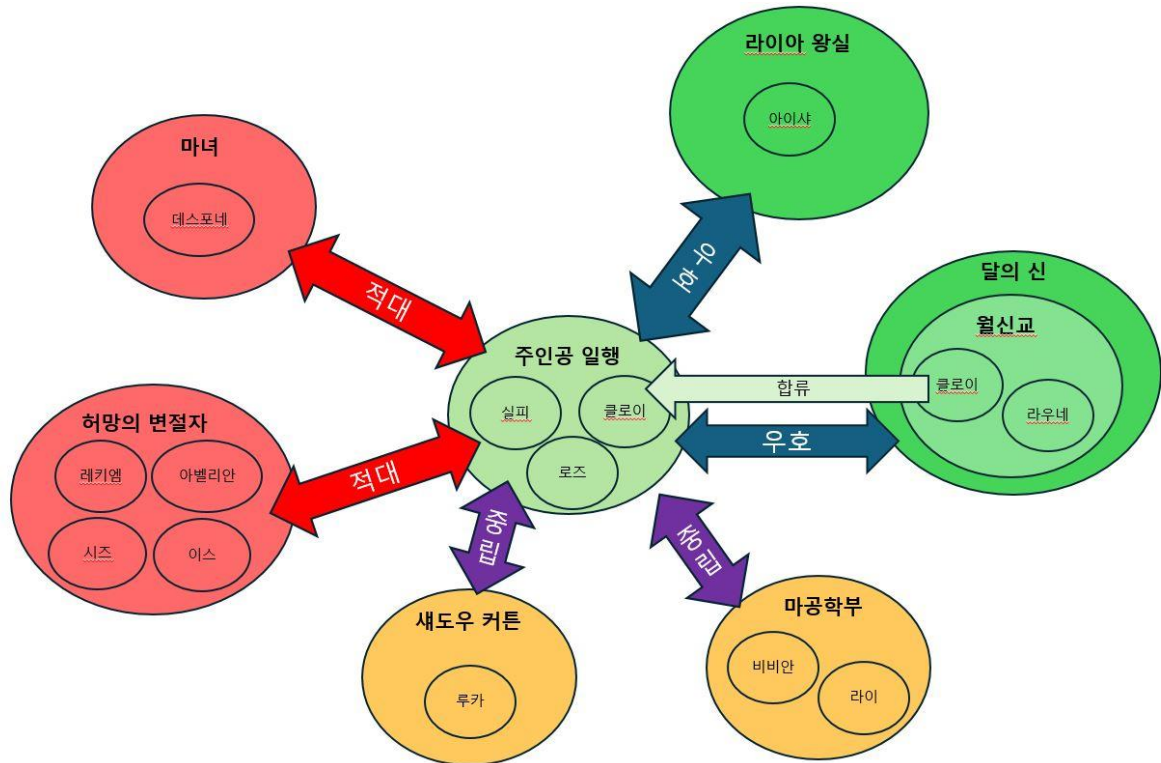


Sprit Witch 갈등구조도



Sprit witch 시나리오

#Scene 1. 예언의 소년 각인자 (저녁/안)

달이 차오르는 밤 고요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와, 울빠미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) 아르카
 렉 531년의 어느 날, 월신교 로도스 지점 이제 막 소년의 티를 벗기 시작한 소년이 문을 조심스
 럽게 노크를 후 열며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다.

문이 열리면서 문에 붙은 종 소리가 울리며,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달빛과 달빛을 받으며
 서있는 신비롭고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기도하고 있는 한 수녀가 보였다.



교회에 들어서자 눈 앞의 수녀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뜨며 물어봤다.

로즈: 어서오세요, 형제님 어떤일로 찾아오셨나요?

그 말을 들은 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.

주인공: 성인식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.

로즈: 그렇군요, 긴장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. 제 이름은 로즈 달의 신 루나님을 믿는 수녀입니다.

로즈는 그 말을 뱉은 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았다.

로즈: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?

주인공: [유저입력 -약칭 라스] 입니다.

로즈: 그렇군요, 그러면 라스 그대의 성인식을 거행하겠습니다.

성인식을 모두 마친 직후 오른손 손등에 미약한 통증이 느껴졌다.

라스: 음!

미약한 통증에 소리를 낸 후 손등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초승달모양의 문양이 손등에 생겨있었다.
문양을 보자마자 놀라 수녀님에게 질문했다.

라스: 대체... 손등에 이 문양은 뭐죠?

수녀님은 손등의 문양을 본 뒤 놀라며 대답했다.

로즈: 이건... 루나님의 증표군요 라스님. 라스님은 세계의 희망[각인자]로 선택받으신 것 같아요

라스: [각인자]요?

로즈: 각인자란 달의 신 루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존재, 늘릴 수 없었던 마력의 총량을 증가시키고, 마녀를 정화할 수 있다고 알려진 세계의 희망 그것이 바로 각인자랍니다 (유저 닉네임)님 부디 저와 함께 마녀를 정화시키고 인류를, 아니 세계를 구해주시겠어요?

라스: 알겠습니다. (선택지1),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(선택지2)

선택지2 로즈: 그렇군요 하지만 각인자님의 능력이 없다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거예요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순 없을까요? - 강제수락 루트

라스: 알겠습니다.

로즈: 감사해요 라스님, 잠시 수도에 연락을 넣을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

그 직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.

몬스터: 끼에에엑

마을사람 a: 까아아악!

그 소리가 들린 직후 라스는 교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마을을 확인했다.



로즈: 라스님 무슨 일이 있나요?

그 물음에 나는 성급하게 대답했다.

라스: 로즈님! 마을이 몬스터에게 공격받고 있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!

로즈: 네 라스님! 저는 수도에 지원요청을 한 뒤 바로 뒤따라가겠습니다 조심하세요!

#Scene.2 – 마을 중심부 (저녁/밤)

라스와 로즈는 서둘러 마을 중심부로 향했다.



마을로 향하자 보이는 것은 몬스터들에게 둘러 쌓인 채 싸우고있는 파란머리의 한 어린아이였다.

아이를 도우러 몬스터 무리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뒤이어 도착한 수녀님이 다가와 말했다.

로즈: 몬스터가 너무 많아요! 각인자님 갑작스럽겠지만 각인자님의 힘을 빌려주세요!

<전투 후>

로즈: 우선 급한 불은 끈 것 같네요

파란머리 아이: 방금 그 힘은?

로즈: 각인자님이 저희를 도와주셨어요

실피: 설마 예언에 나온 그 각인자?! 도와줘서 고마워! 나는 물의정령 실피야!

그렇게 말하는 실피는 얼룩진 얼굴로 해맑게 웃으며 말을 꺼냈다.

라스: 당연한 일 인걸 그나저나 수녀님 몬스터는 이게 전부일까요?

로즈: 모르겠어요 이 일대는 전부 끝이 난 것 같으니 다른 곳을 도우러 가야할 것 같아요.

라스: 우선 주변을 탐색해보죠

???: 그럴필요는 없습니다. 이 일대는 저희 월신교의 기사단이 토벌을 완료하였습니다. 오랜만이군요 로즈 수녀님, 혹시 이분께서 각인자님 이십니까?

그렇게 말한 하얀 갑옷의 여기사는

로즈: 네 오랜만에 뵙네요 클로이님, 옆에 계신 이분이 각인자, 라스님이세요

그러자 하얀 갑옷을 입은 금발의 여기사는 내 손등에 새겨진 초승달 문양의 표식을 확인하고는 입을 열었다.

클로이: 사실이군요... 반갑습니다 각인자님 저는 월신교의 기사단장 클로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



말을 마치고 기사단장, 클로이가 내민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다.

라스: 잘 부탁드립니다. 클로이님

클로이: 각인자님, 괜찮으시다면 마을을 수습한 뒤 내일 저희와 함께 수도로 가주시겠습니까? 성녀님께서 각인자님을 모셔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. 로즈, 그리고 정령님도 부탁드립니다.

그 말을 듣고 짧은 고민 끝에 별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 대답했다.

라스: 알겠습니다. 내일 뵙도록하죠

#Scene 3. 수도로 향하는 길 - (낮/밖)

마을의 수습이 끝난 뒤 성기사단의 보호를 받으며, 수도를 향해 가던 중 로즈와 나는 클로이에게 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설명했다.

실피: 어때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났을거라고!

실피는 작은 어깨를 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.

클로이: 대단하시군요 실피님, 그나저나 각인자님 각인자님께서서는 성녀님과 같은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 저를 편하게 클로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.

로즈: 저도 편하게 로즈라고 불러주셔도 돼요 라스님.

실피: 나도 편하게 실피라고 불러 각인자님!

모두의 말이 끝난 후 나는 멋쩍게 웃음 지으며 대답했다.

라스: 알겠어 클로에, 로즈, 실피 너희들도 나를 라스라고 불러도 돼

클로에: 그럴 순 없습니다. 각인자님께선 아까도 말씀드렸다 싶이 성녀님과 동등한 위치, 그렇다면 라스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

로즈: 알겠어요, 라스

실피: 응! 라스!

그렇게 수도에 다 와갈 때쯤 앞에서 기사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

기사단원: 단장님, 각인자님! 전방에 몬스터가 출현했습니다!

클로이: 라스님 죄송하지만 몬스터를 퇴치하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. 힘을 빌려 주시겠습니까?

라스: 네, 실피, 로즈 가자!

전투시작 및 (전투 끝)

클로이: 수고하셨습니다 라스님, 로즈, 실피

로즈: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

실피: 수고했어!

클로이: 수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가도록하죠.

#Scene 4. 수도 레인드로 - (저녁/밖)

수도에 들어서자 로도스와는 마치 다른 세계 같은 화려한 건물들과, 수많은 조명, 그리고 신기한 도구들과 수많은 인파가 시선을 사로잡았다.



클로이: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곳이 바로 라이아왕국의 수도 레인드로입니다.

그렇게 말하는 클로이의 말을 뒤로 한 채 도시를 바라보자 로즈와 실피의 말이 들려왔다.

로즈: 수도는 1년만이네요

실피: 우와 수도는 처음와봐! 각인자님은 와본적 있어?

라스: 나도 처음이야

클로이: 저는 업무를 보고하러 월신교 대성당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'해일의 여관'에 미리 말을 해 두었으니 여관에서 몸을 푸십시오 내일 여관으로 찾아뵙겠습니다.

로즈: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

실피: 네!

라스: 네.

우리의 대답을 들은 클로이는 짧은 인사를 내뱉은 뒤 먼저 자리를 벗어났다. 그 후 우리도 수도를 잠시 둘러본 뒤 숙소로 향하였다.

Scene 5. “해일의 여관” – (밤/안)

숙소의 입구에 도착하자 로즈는 들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.

로즈: 여기가 바로 레인드로 최고의 여관 "해일의 여관"이에요 저도 너무 비싼 가격에 와보지 못했는데 처음 와보네요!

그 말을 듣고 여관의 풍경을 둘러보았다. 드높은 천장, 화려한 조명, 잔잔하게 들려오는 음유시인의 연주소리, 그 연주를 들으며 고된 하루를 이야기를 하는 모험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

로즈: 저와 실피는 방에 짐을 두고 내려올게요 라스는 식사주문을 부탁드립니다

라스: 알겠어

로즈와 로비의 점원분께 말을 한 뒤 안내를 받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후 적당한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했다.

라스: 여기, 점원님!

점원: 네 무엇을 드릴까요?

라스: 요리사분께서 추천하시는 세명분의 저녁식사, 그리고 물도 부탁드립니다.

점원: 네 감사합니다!

그 말을 뒤로한 채 점원이 테이블을 떠나자 옆 테이블에서 말하는 대화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.

???: 셀린 들어봐 어제 [각인자]가 나타났다고 월신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야

셀린: 루시드님 그 얘기는 아직 극비라니까요! 게다가 성녀님이 확인하지 않은 이상 확실하지도 않고요

루시드: 소문이 난적은 많지만 교단에서 말이 나온건 처음이잖아? 아마 사실이겠지, 내일이면 알 수 있지 않을까?

그 대화를 듣던 도중 로즈, 실피와 함께 식사를 마친 뒤 방으로 올라갔다.

라스: 각인자... 내가 잘 할 수 있을까?

혼자 방에 누워 생각에 빠지던 도중 노크소리가 들려왔다.

로즈: 라스 깨어있나요?

라스: 선택지1(들어와), 선택지2(자는척을 한다)

선택지 1루트

로즈: 아직 안 주무셨군요 혹시 너무 갑작스러운 나머지 잠이 안 오시는건가요?

라스: 응 너무 갑작스러운 하루여서 그런지 잠이 안오네

로즈: 너무 걱정마세요 로도스마을에서 있던 일, 오는길에 만났던 몬스터와의 전투에서 라스 덕분에

에 모두 잘 끝났으니까요, 앞으로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밤이 늦었으니 우선 잠을 자고 내일 성녀님을 만나 다시 이야기해봐요

라스: 고마워 잘자 로즈

로즈: 안녕히 주무세요 라스

로즈는 방을 나간 뒤 서둘러 잠을 청했다.

선택지 2루트

로즈: 주무시는 모양이네요... 내일봐어요 라스님

#Scene 5-2. “해일의 여관” – (아침/안)

창문에는 햇빛이 들어오며, 새의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들리는 노크소리에 잠을 깬다.

로즈: 라스, 일어나셨나요?

실패: 라스, 일어났어?

라스: (노곤한 목소리로) 응

로즈: 잠시 후 클로이 님이 여관으로 오신다고 하니 천천히 내려오신 뒤 식사를 하도록 해요 저희는 미리 내려가 음식을 주문하고 있을게요.

방에서 나온 뒤 내려가 식사를 마치니 클로이가 여관의 문을 열고 찾아왔다.

클로이: 다들 편하게 쉬셨습니까? 성녀님께서 준비가 끝났다고 하니 대성당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라스님 지금 이동해도 괜찮으실까요?

라스: 괜찮아요, 그렇게 하죠

클로이: 감사합니다. 그러면 지금 대성당으로 향하도록 하죠

#Scene 6. 월신교 대성당 – (낮/안)

대성당은 매우 화려하고 거대했다. 대성당에 들어서자 눈 앞의 거대한 신상에 넋을 잃고 있자 신상의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.

성녀: 어서오세요 라스님, 그리고 일행분들 저는 성녀를 맡고 있는 달의 정령 라우네 드 세인트, 줄여서 라우네라고 불러주세요 잘 부탁 드려요. 그리고 로즈 1년만이네요

그렇게 말하는 성녀님은 옅은 미소를 지은 채 마치 달과 같은 긴 하얀머리와 하얀 옷을 입고 서 있었다.



로즈: 네 성녀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?

라스: 로즈, 성녀님과 아는사이야?

로즈: 네 라스, 로도스로 가기 전 여기서 수녀를 하고 있었거든요

그러자 성녀, 라우네는 로즈에게 빠진 듯 나무라다가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.

라우네: 그나저나 로즈 1년동안 편지 하나 없던게 말이 돼요? ㅎㅎ..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라스님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?

라스: (고개를 끄덕이며 신상 밑으로 걸어갔다)

라우네: 여기서 라스님의 능력을 자세하게 확인할게요, 우선 증표를 보여주시겠어요?

오른쪽 손등을 위로하여 손을 내밀자 성녀는 손등에 손을 올린 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서있었다.

그러기 시작한지 1, 2분 성녀는 서서히 눈을 떴다

라우네: (라우네는 허공에 뜬 무언가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한다), 우선 라스님은 루나님께서 말씀하신 각인자님이 맞으세요 라스님의 능력을 우선 설명해드려도 괜찮을까요?

라스: 부탁드립니다.

라우네: 라스님의 말씀드리자면, 각인을 통해 타인의 마력을 강화하는 능력, 마녀의 죽음을 마주할 때 마녀를 정화시켜 부활시키는 능력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여신님이 라스님과 뵈고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

라스: 여신님을 뵈다니 어떻게 해야하는거죠?

라우네: 오늘은 만월의 날, 오늘 밤 다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?

라스: 네 성녀님

라우네: 감사합니다. 그간 시간이 남을 테니 마공학부에 가서 물건을 수령한 뒤 모험가 길드로가서 모험가를 등록하시는 것은 어떨까요?

라스: 물건이요?

라우네: 네 라스님에게 앞으로 도움이 될 물건들을 부탁드렸거든요

라스: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녀님

대답하자 라우네는 클로이를 바라보며 말했다

라우네: 다행이네요. 클로이 라스님과 그 일행분들의 안내를 부탁드릴게요

클로이: 알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가시죠.

#Scene7. 마공학부(낮/안)

클로이: 도착했군요

그 말과 함께 보인건 앞에있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과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한 건물 내부였다.

라이: 어서오세요 이곳이 왕국 최고의 기술력이 모인 곳 마공학부, 저는 마공학부의 수석 연구원 라이예요.

그렇게 말하는 갈색 머리의 여성은 손으로 무언가를 가르켰다.



라이: 여기에 있는 승강기 라는 물건을 통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여기에 타시죠 여러분들에게 대한 부탁은 연락은 이미 받았으니까요

승강기는 조금씩 흔들리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.

실피: 각인자님 이거 혹시 갑자기 추락하거나 하진 않겠지?

라스: (긴장된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.)...

클로이:(웃으며 말한다) 몇번이고 타봤지만 아무 이상 없었으니 다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그렇게 위로 올라가자 어느 지점에서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승강기가 멈추었다.

라이: 도착했네요 이 앞에 연구소장님이 계십니다.

앞에 있는 문은 네모난 모양의 신기한 장치가 달려있어 있었고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장치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.

???: 문은 열어 뒀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와!

라이씨가 문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고 라이가 입을 열었다.

라이: 들어가시면 됩니다.



라이의 안내를 받아 문 안으로 들어가자 보인 것은 코트가 큰지 한쪽 손이 소매 안으로 들어가있는 초록머리 꼬마애가 의자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.

그걸 보며 연구원의 자녀분이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던 도중 앞에있는 꼬마애가 입을 열었다.

???: 거기 너! 각인자라도 무례한 생각은 그만둬! 이 몸은 마공학부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바람의 정령 비비안 님이다!

라스: 죄송합니다.

비비안: 흥! 알면 됐어 라이! 말해 줬던 물건 좀 가져와!

이후 들어오지 않았던 라이가 무슨 가방을 들고왔으며, 테이블위에 가방을 펼쳤다. 그곳에는 3장의 카드와 투명한 구체가 2개 그리고 하얀 장갑이 들어있었다.

라이: 이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마도구들이에요. 이 카드 같은 물건은 로즈님과 실피님, 비비안님께 필요한 마력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마도구예요 고대의 문명을 바탕으로 제작하여 저희는 이걸 Relic(렐릭)이라 부르고있어요.

라이: 또 하나는 통신구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통신구는 처음에 본인의 마력을 등록해야 해요 라스님, 실피님 한번 등록 해보시겠어요?

라스: 네

실피: 응!

마력을 부여하자 구체가 잠시 빛나기 시작한 뒤 빛이 차차 사라졌다.

라이: 이로써 통신구의 등록은 완료했어요. 이제 통신구끼리 맞댄 뒤 서로가 마력을 흘려 넣으면 서로의 통신구의 파장이 공유돼요. 다음엔 떨어져 있어도 파장이 등록된 대상을 생각하며, 마력을 흘려 넣을 시 연락이 가며 대상이 마력을 흘려 넣어 수락한다면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가 가능해요.

라스: 대단한 물건이네요

라이: 네, 마공학부에서 제작한 최고의 물건 중 하나죠.

그러자 남은 하나의 장갑이 궁금해졌다.

라스: 이 하얀 장갑은 뭔가요?

라이: 아 이건 라스님을 위해 특별 제작된 장갑이에요. 라스님의 손의 표식을 마녀에게 발각된다면 더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. 이 장갑에는 자동 수복의 기능과, 마력을 어느정도 차단하여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있어요.

비비안: 어제 저녁 연락을 받고 이 몸이 급히 만든 물건이다! 영광으로 알도록!

그 모습을 보자 어린아이가 자랑하는 듯한거 같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.

라스: 감사합니다.

비비안: 흥! 알면 됐어! 줄건 다 줬으니 용무가 끝났으면 빨리 나가!

그 말을 들은 라이가 말을 꺼냈다.

라이: 제가 밖까지 안내 해드릴게요

라이를 따라 마공학부의 문 앞에서 라이가 말을 꺼냈다.

라이: 다소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긴 하지만 마음이 깊으신 분이예요, 낯가림이 심하신 분이셔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공격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부디 이해해주시길 바랄게요. 아마 다음에 또 오신다면 그때는 좀 더 너그러워 지실거예요. 여기서 저 방향으로 가시면 모험가 길드에요 부디 다음 기회에 또 뵙길 바랄게요.

#Scene8. 모험가 길드(낮/안)

수많은 사람들 북적거리는 소리 무수히 많은 다양한 옷과, 종족의 사람들이 있었다. 웃고 떠드는 사람, 게시판을 보고 고민하는 사람, 접수처에서 대화를 하는 사람 등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보였다.



클로이: 모험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이분이 각인자인 라스님이십니다.

클로이가 말한 모험가장이라는 사람을 보자 어제 옆자리에 나(각인자)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보라색 머리의 엘프가 나를 바라보며 호쾌하게 말을 꺼냈다.



루시드: 어! 어제 여관에서 옆자리에 있던! 설마 너가 각인자였을 줄이야 우선 올라와 여기는 시끄러우니까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

모두가 2층으로 올라가자 수많은 방이 있었다.

그 중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가자 사무실과 같이 생긴 방이 있었다. 소파에 앉자 루시드가 말했다.

루시드: 셀린! 설명 부탁해

그 말을 들은 셀린이라는 여성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.

셀린: 루시드님도 참... 그러면 제가 의뢰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어제 밤 베스마에서 허망의 마력을 발견했다고 해요. 라스님과 여러분들은 베스마로 가서 진위를 확인해주세요 마녀, 혹은 허망의 변

절자와 관련된 일은 교단에서 처리하지만 성녀님의 요청이 있어 각인자님께서 의뢰를 수락하신다면 각인자님께 의뢰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.

로즈: 라스님 어떻게 하실건가요?

라스: 조금만 더 고민해봐도 될까요?

셀린: 그럼요! 통신구는 가지고 계신가요?

라스: 네 여기있습니다.

통신구를 꺼내자 셀린은 통신구를 꺼내 공끼리 맞닿고 마력을 흘려넣기 시작했다.

그 모습을 보며 나 또한 마력을 흘려보냈다.

셀린: 이거로 됐어요! 연락은 내일 오전안에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점심쯤에 출발하기로 했거든요.

라스: 감사합니다.

루시드: 나로써는 각인자가 일을 수락해줬으면 좋겠는 걸! 실전 기회는 많을 수록 좋은 법이거든!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자고!

그 말을 들은 우리들은 모험가 길드를 나오자 저녁이 되어 달이 떠있었고, 성녀님에게 돌아갔다.

#Scene 9. 월신교 대성당(저녁/안)

만월이 뜬 밤 대성당의 내부에는 달빛이 흘러 들어와 빛나고있었으며 그 가운데 서계신 성녀님이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.

라우네: 오셨군요 라스님. 준비는 되셨나요?

라스: 네 성녀님 부탁드립니다.

라우네: 그러면 이 신상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해주세요.

그 직후 성녀님은 내 옆에 앉아 똑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, 그 모습을 본 나는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다.

#Scene 9-2. ??? (저녁/안)

??? : 오셨군요 각인자. 세계의 희망이여

얼마만큼이 지났을까 앞에서 들려오는 말에 눈을 뜨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얀 공간 한 가운데에 연한 보랏빛 머리를 한 매우 아름다운 천사가 서 있었다.



???: 저는 달의 신 루나. 이 만남을 오랜시간 기다려왔습니다.

그 말을 들은 직후 여러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왔다.

이 곳은 어디인지, 왜 내가 각인자가 된것인지,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.

루나: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각인자. 그 질문들에 답해드리죠.

내 앞에있는 신은 마치 내 생각을 읽은 듯한 말을 꺼냈으며 그것은 나를 당황케 했다.

루나: 아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합니다.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, 멋대로 읽었습니다.

라스: 아닙니다. 그렇다면 부탁드립니다.

그 대답을 들은 신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.

루나: 네, 우선 이곳은 심상의 세계 저만의 권능이자 공간. 이 곳에서의 시간은 밖의 시간의 흐름보다 굉장히 길답니다. 이야기가 끝난다면 다시 돌아갈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.

두번째로 당신이 각인자가 된 것은 운명의 선택 유일하게 각인의 힘을 지닐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. 이는 저 또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됐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

마지막으로 저의 성녀 라우네와 함께 마녀들을 정화시켜 세계를 구해주시길 바랍니다. 마녀들은 부정의 감정에서 태어나 악마와 계약한 정령들. 그녀들. 마녀와 마녀랑 계약한 악마들을 막지 못한다면 세계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. 부디 우리의 세계를 위해.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부디 부탁드립니다.

그 말을 뱉은 뒤 신님은 고개를 숙여 부탁하였다.

내가 살아남기 위해서, 그리고 이제는 정이 들어버린 나의 동료들을 생각하며 대답했다.

라스: 알겠습니다. 루나님.

루나: 감사합니다 라스님. 시간이 다 되었군요, 다시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. 부디 앞으로도 달과 태양의 가호가 함께하길...

#Scene 9-3. 월신교 대성당(밤/안)

나는 감은 눈을 떴다. 그러자 보이는 것은 아직도 눈을 감고 있는 성녀님과 이제는 달빛이 줄어든 성당의 내부였다. 그 직후 라우네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.

라우네: 눈을 뜨셨군요 라스님, 모든 궁금점은 풀리셨나요?

라스: 네 성녀님

라우네: 다행이군요, 밤이 늦었으니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성당에서 잠을 청하신 뒤 가시는 게 좋아 보이네요.

라스: 감사합니다 성녀님 모두들 괜찮을까?

로즈: 네 라스

실피: 응 좋아!

라스: 그렇다면 하루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성녀님.

라우네: 그럼요 클로이 안내를 부탁해도 될까?

클로이: 알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.

클로이에게 안내받은 방을 들어간 나는 쏟아지는 수마에 이기지 못한 채 잠에 들었다.

#Scene 9-3. 월신교 대성당(아침/안)

노크소리에 눈을 뜬 뒤. 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와 함께 클로이의 말이 들려왔다.

클로이: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. 준비를 마치신 뒤 내려오시면 됩니다.

라스: 고마워 클로이.

클로이: 아니요 별 말씀을 저는 로즈와 실피를 깨운 뒤 내려가겠습니다.

라스: 응 부탁할게

따뜻한 빵과 스프를 먹고 의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통신구를 통해 셀린씨에게 연락을 했다.

셀린: 여보세요 결정은 하셨나요?

라스: 네 그 의뢰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.

셀린: 잘 선택하셨어요 출발은 오늘 낮 모이는 장소는 모험가 길드로 오시면 됩니다.

라스: 네 알겠습니다. 그때 뵙도록 하죠.

연락을 마친 뒤 준비가 끝나고 나가려던 찰나 성녀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

라우네: 라스님,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 클로이와 함께 다니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클로이도 좋아하며 승낙하더라고요, 그치 클로이?

그러자 클로이는 성녀님 뒤에서 나타나 다소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.

클로이: 그럼..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스님

라스: 응 지금까지도,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클로이

그 후 우리는 모험가길드로 향해 발을 옮겼다.

#Scene 10. 모험가 길드 (낮/안/)

모험가 길드에 들어가자 셀린의 안내를 받고 지하로 따라가자 방 앞에서 멈춘 셀린이 말을 꺼냈다.

셀린: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

그 직후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에 먼지가 쌓인 셀린이 나와 머리의 먼지를 털며 말했다.

셀린: 이 무기를 받아주세요 각인자님과 실피님의 무기예요, 클로이님의 경우는 모험가 길드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를 착용하셔서 드릴게 없네요 죄송해요.

클로이: 아닙니다.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셀린님.

셀린: 감사해요. 이 무기는 앞으로 각인자님과 실피님의 무기니 마음대로 사용해주세요. 이제 바로 베스마 마을로 가신다면 저녁이 될거예요 한시가 급한 일이라 바로 출발하셔야 할 것 같아요.

그 말을 들은 뒤 실피는 신나서 큰소리로 말했다.

실피: 이렇게 좋은 무기는 처음 써봐! 고마워!

라스: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 셀린님

#Scene 11. 공격당하는 베스마 마을(저녁/밖/마을 안)

베스마 마을에 다와가자 보이는 것은 불타는 건물들이었다. 서둘러 들어서자 보이는 것은 (불타는 건물들과 무너진 울타리, 몬스터에게 공격당해 도망가는 사람들이었다.) 재의 냄새, 사람들의 비명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.

‘ 짹 ’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린 나는 말을 꺼냈다.

라스: 실피, 클로이! 몬스터의 퇴치를 로즈는 부상자들을 치료해줘!

모두: 네!

<전투 후>

클로이: 후우... 우선 눈앞에 보이는 몬스터들은 전부 해치운 것 같군요. 로즈 상황은 어떻습니까?

로즈: 부상을 입으신분이 많아 저는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아요 각인자님과 실피는 주변의 탐색을 부탁드립니다, 클로이님 저의 호위를 부탁해도 될까요?

클로이: 물론이죠 그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스님

라스: 알겠어, 실피가자

실피: 응!

#Scene 9-2. 공격당하는 베스마 마을(저녁/밖/마을 밖)

실피와 함께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자 마을의 주변의 숲에서 허공에 불이 일렁이는 듯한 모습을 본 나와 실피는 경계하며 숲으로 들어갔다.

숲에 들어가 불에 다가가자 말소리가 들려왔다.

???: 흠... 설마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 걸? 내 수하들은 전부 처리한 걸까~? 아 참! 내 소개가 아직이었네 나는 허망의 마녀 데스포네님의 추종자 불의 정령 레퀴엠. 잘 부탁해?

그 말을 한 뒤 불, 레퀴엠은 모습을 드러냈다. 붉은 머리와 붉은눈을 가진 그녀는 손에서 불길을 일으키며 말했다.



레퀴엠: 이거는 인사 대신이야!

(전투 후)

실피와 레퀴엠의 전투의 결판이 나지않자 레퀴엠은 뒤로 이동한 뒤 몸에서 지금까지와는 수준이 다른 불꽃을 내뿜으며 말했다.

레퀴엠: 생각보다 잘 버티는걸? 그럼 이거는 어때!

실피: 라스! 더 뒤로가!

실피는 공격에 대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팔을 휘두르려는 찰나, 그림자가 사이에 나타나 공격을 삼켜버렸다.

???: 더 해볼 생각 없으면 꺼져, 지금은 놔줄 테니까

레퀴엠: 흐응... 그림자의 정령까지 합세해서 싸우기엔 조금 벅차겠는걸~ 좋아, 지금은 물러나도록 할게

그 말을 남긴 채 레퀴엠은 불꽃이 되더니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.

???: 너희도 가 마을의 인원들을 구하는게 우선이잖아 잔당의 처리는 우리가 할 테니까

라스: 당신은 대체 누구죠?

???: 나는 새도우 커튼의 단장 루카. 조만간 또 만나게 될거야

그 후 루카는 그림자가 되어 모습을 감추었다.

라스: 우선 돌아가자 실피

실피: 응...

일행에게 돌아가자 로즈가 먼저 말을 꺼냈다.

로즈: 오셨군요 라스, 실피 주변은 어땠나요?

로즈와 클로이에게 마을 밖에서 있던 일을 설명한다.

로즈: 그렇군요... 새도우 커튼과 변절자라... 이 이야기는 수도로 돌아간 뒤 이어서 하도록 해요 마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인원들의 치료는 끝났어요.

클로이: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여기서 잠을 청한 뒤 내일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침 촌장님께 부탁드려 건물 하나를 빌렸습니다. 그곳에서 잠을 청하도록 하지요

라스: 알았어. 그렇게 하도록하자.

건물에 들어간 우리는 성녀님과 길드장님께 연락을 드린 뒤 서둘러 잠을 청했다.

#Scene 9-3 공격당하는 베스마 마을(아침/밖/마을 안)

클로이: 그러면 수도로 돌아가도록 하죠 다들 준비는 되셨습니까?

실피: 응!

로즈: 네.

라스: 다 된 것 같아 그럼 출발하자

우리는 서둘러 수도로 향하였다.

수도를 향한 후 바로 월신교의 대성당으로 들어갔다.

#Scene 10. 월신교 대성당(낮/안)

대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보이는 것은 라우네님과, 진중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귀품있는 옷을 입은 여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.

클로이: 성녀님 복귀하셨습니다.

라우네: 어서와요 클로이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...

???: 내가 직접 소개하도록 하지 성녀여, 내 이름은 아이샤 폰 라이아, 라이아 왕국의 제1 왕녀다 잘 부탁하지 라스. 그리고 그 일행이여, 각인자라면 중요 인물, 우호를 다지기 위해 아이샤라고 불러도 좋다.

왕녀, 아이샤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.

아이샤: 잘 부탁한다

내민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다.

라스: 잘 부탁해

라우네: 인사도 모두 마쳤으니 어제 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요?

(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다)

아이샤: 흠, 루카와 레퀴엠이라... 새도우 커튼이 어째서 베스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다. 왕실에서도 몇 번 의뢰를 맡겨왔지만 라이아 왕국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.

라우네: 문제는 레퀴엠 이네요 허망의 마녀 데스포네... 그녀와 그녀의 변절자들은 알고 있지만 레퀴엠이라는 변절자는 처음 듣는 걸 보니 새로운 변절자일까요?

아이샤: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, 왕실에서도 파악하고 있던 허망의 변절자들 중에서도 그 이름은 없었으니까

라스: 변절자들?

아이샤: 그래 왕실에서 파악하고 있던 허망의 변절자는 셋, 땅의 정령 - 아벨리안, 외팔의 검사 - 시즈, 닿지 못한 자 - 이스, 이 세명이 왕실에서 파악하고 있던 허망의 변절자다.

라우네: 저희가 파악하고 있던 정보도 동일해요. 그런데 레퀴엠이라니.

아이샤: 이로써 허망의 변절자는 네 명이 되었군 라스여, 변절자가 너를 본 뒤 떠난 이상 정체가 들통났을 가능성이 있다. 앞으로의 행동에는 더욱 주의를 해야겠구나.

라스: 응 그래야 할 것 같아

아이샤: 그래서 말이다 라스, 이 뱃지를 들고 다니거라.

그렇게 말한 아이샤는 손을 내밀었고 그 곳에는 왕실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.

아이샤: 이 뱃지가 있다면 대부분의 지역은 절차 없이 다닐 수 있을거다. 모든 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. 또한 왕실에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다. 부디 가지고 가거라.

라스: 이런 물건을 막 줘도 되는거야?

아이샤: 무얼 이 몸은 제1 왕녀 어마마마를 제외한다면 최고의 권력을 지녔다.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거라

라스: 고마워

아이샤: 이야기도 끝났으니 이만 돌아가야겠군 메이! 돌아간다!

메이: 네 왕녀님